

05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은 말하지 않았다

- 마르틴 루터를 이은 장칼뱅(장로파 교회의 창시자)의 사상체계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세계사를 움직일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장칼뱅 사상의 핵심은 ‘예정설’이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쌓느냐 못 쌓느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 [신약성서]의 [로마서] 8장 30절에는 “신은 미리 정해진 자들을 부르고, 부른 자들을 의로 삼으며 의로 삼은 자들에게 영광을 내렸다.”

- 다만 현재 예정설을 인정하는 종파는 소수파이므로 이를 기독교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여기면 안된다.

-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뱅파의 예정설이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능한 신에게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이라면 금욕적으로 천명을 다해 성공하는 인간일거라 생각하고 ‘자신이야말로 구원받기로 선택된 인간’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 금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논리다.